

## 완벽한 균형

-아세르 인트레이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르침에는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히 4:12)입니다. 양 방향으로 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함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꾸짖으려면, 우리 자신의 죄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경고도 하십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경 교사들은 이 검의 한 면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곤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단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한쪽만 가르치는 것은 지나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헤아림에 대한 헤아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 7:2, 막 4:24).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영혼에는 영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 21:23-24).

예수아의 인성과 신성 간에는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롬 1:3-4). “이스라엘의 왕” (요 12:13)이시며, “교회의 머리” (엡 1:21)이십니다. 이 두 역할 사이의 균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온 교회는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것입니다 (롬 11:17, 26).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의 땅에서의 측면을 보려 하는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하늘의 측면을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아를 통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인데, 하늘과 땅에서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엡 1:10).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졌습니다. 고전적인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은 서로 상반됩니다. 우리는 뇌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뇌는 창조적 사고를 좌뇌는 분석적인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봅니다. 한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두 눈으로는 더 깊은 인식과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균형의 기하학적 상징입니다.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 십자가는 구원자의 은혜로 용서를 주지만, 동시예왕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요구합니다. 하늘과 땅이 화해하고, 동에서 서까지 이르게 합니다. 물리와 화학에서도 하나의 작용에 대해서는 같은 힘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 중에 마음 가운데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균형이 조금이라도 기울여졌으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균형이 완벽하게 유지되었기에, 별다른 수고 없이 바람 속을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평등 모병 법안

크네셀 최초의 투표로 모병에 있어서 초정통파를 포함한 모두에게 평등을 요구하는 새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군복무를 해야 할 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레디-아쉬케나지의 초정통파입니다. 두 명의 의원 메이크 포루쉬(Meir Porush)와 모세 가프니(Moshe Gafni)는 그 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포루쉬는 크네셀 단상에서 사슬로 자신을 묶었고, 가프니는 애곡하듯 옷을 찢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러한 시위가 부적절하고 위선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진정한 진리와 믿음을 찾는 반응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아랍 크리스천 군인들

- 6월 23일자 <마아리브>에서 발췌

이번 주 예루살렘의 그리스 정교회의 총주교가 팔레스타인 당파의 압력에 굴복하여 나사렛의 나다프 신부를 해임했습니다. 나다프는 크리스천 아랍인들을 IDF로 뽑는 것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수 차례 받아왔습니다. 나다프는, “우리 젊은 이들을 위협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 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아랍인들은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하는 믿는 아랍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슬픔에서 기쁨으로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알론(Alon)과 하나(Hannah)는,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저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콜롬비아에 있는 알론의 형이 길 가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의해 냉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6 개월 전, 알론의 사랑하는 조카도 길에서 마스크 쓴 괴한들에 피습당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달 또 한번의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오는 알론의 동생이 잔인하게 피격 당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내 알론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공동체로서 저희는 알론과 하나가 콜롬비아에 가서 가족들을 방문하도록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나가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알론이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했어요. 오직 예수아께서만 이러한 비극을 멈추실 수 있다고 설명했구요.”

계속 가족들이 전화해서 알론과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즈음 60 여명의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은 가장 최근에 살해당한 동생의 가족들을 방문했을 때예요. 동생의 아내와 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들은 분하고 원통해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셋 모두가 알론과 함께 기도했어요. 동생 아들은 알론의 품에서 완전 녹아졌어요. 예수아께서 그 안의 분노를 치유하시는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알론과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치유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엄청난 비극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